치매 어르신들 꽃 키우며 심신 치유

곡성군, 치매 환자 치유프로그램 오는 3일~9월까지 총 20회 운영 '나에게 꽃 선물' 등 프로그램 다양

곡성군의 치매·우울증 환자 대상 치유프로그램. 〈곡성군 제공〉

"치매 어르신들이 꽃과 작물을 심고 키우면서 오감(五感)을 통해 불안감과 외로움을 덜고, 과거의 즐거웠던 때를 회상하며 안정을 되찾는 힐링의 시간이 될수 있죠."

오는 3일부터 운영될 곡성군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정형복 원예치료사가 치유농업의 효과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또 그는 프로그램 중 '본인에게 꽃 선물하기' 시간을 갖고 자신들을 위로·격려하는 프로그램도 계획하고 있다.

곡성군 농업기술센터가 오는 3일부터 치매환자와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곡성군 치매안심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치매와 우울증 환자 10명씩 총 20명을 대상으로 오는 9월까지 1회 당 2시간씩 총 20회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장소는 농업기술센터 내 시험재배시설인 '실증포'이다.

치유농업은 작물을 재배하면서 보고, 만지고, 맡으며, 맛보면서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유지 및 증진시키기 위한 농업활동을 말한다. 이번 곡성군 프로그램에는 정형복 원예치료사와 임금옥 치유농업사가 참여해 대상자 맞춤형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프로그램 강사비와 재료비는 곡성군농업기술센터가 전액 지원한다.

씨앗심기·가꾸기·수확하기 등 텃밭가꾸기 뿐만 아니라 테라리움·접시정원 만들기 등 원예치료, 물레를 활용한 도예체험 등 다양한 치유활동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특히 텃밭을 활용한 식물 가꾸기와 원예치료는 자연 속 신체활동을 통해 스트레스 및 우울감 해소와 치매예방에 실질적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곡성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사회적 소외계층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곡성=서승원 기자 swseo@kwangju.co.kr

'소리 본고장' 보성서 명창들 실력 대결

서편제보성소리축제 4일~6일…조상현 명창 특별 공연 등 다채

대한민국 대표 소리 축제인 '제27회 서편제보성소리축제'가 내달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보성다향대축제 기간 중 열린다.

서편제보성소리축제는 보성군이 주최하고 서편제보성소리축제추진위원회가 주관하며, 한국 전통 음악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전국 판소리·고수 경연대회를 통해 신진 인재를 발굴하고 공연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전통 예술의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축제는 전통 판소리를 중심으로 ▲전국 판소리·고수 경연대회 ▲국악 명인들의 특별 공연 ▲명창 추모제 등 전통의 멋과 깊이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또한 ▲전통 악기 만들기 체험 ▲주막집 판매행사 ▲마술 배우기 등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참여형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돼 관람객에게 풍성한 즐길 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축제에서는 대한민국 대표 판소리 명창 조상현 국창의 특별 공연이 예정돼 있어, 전통 소리의 진수를 만날 수 있는 뜻깊은 무대가 될 전망이다.

이번 축제는 사흘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관람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축제 첫날인 4일에는 서막을 여는 전국 판소리·고수 경연대회 예선이 열리며, 판소리와 고수 부문으로 나뉘어, 명창·명고부, 대학 및 일반부, 신인부, 학생부 등 다양한 부문의 참가자들이 무대에 오른다.

5일에는 경연대회 본선과 함께 ▲장년(노년)부 경연 ▲명인·명창 고수 열전 ▲역대 대통령상 수상자 축하공연 ▲보성군립국악단 특별공연 등이 이어지며, 시상식도 진행된다.

6일은 보성판소리성지에서 명창 추모제가 열린다. 보성 소리의 맥을 잇는 명창들의 업적을 기리고, 전통 판소리 정신을 계승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예정이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서편제보성소리축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 소리 축제로 자리매김했다"며 "남녀노소 모두가 국악을 즐기고 소리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경연대회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참가신청서와 증빙자료를 4월 25일 오후 6시까지 서편제보성소리축제추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보성문화원(061-850-5892/852-2629)에 문의하거나 서편제보성소리축제 홈페이지(http://www.boseong.go.kr/tour/festivity/sopyonje)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최대 3박 할인 … 고물가시대 '슬기로운 광양 여행'

광양시 '남도숙박 할인 빅 이벤트' 관광객 월 1회…11월까지 진행 체류 관광 유도·지역 경제 활성화

광양 관광의 핫플레이스로 부상하고 있는 배알도 섬. 〈광양시 제공〉

광양시가 여행하기 좋은 계절인 봄, 고물가시대를 극복하고 슬기롭게 광양 여행을 떠나는 방법으로 '남도숙박 할인 빅 이벤트'를 소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남도숙박 할인 BIG 이벤트'는 관내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월 1회, 최대 3박 할인 혜택을 지원함으로써 체류 관광을 유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사업이다.

이벤트 참여 대상은 전라남도 외 주소를 둔 관광객이다. 이벤트 기간은 11월30일까지이며, 희망자는 전남관광플랫폼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남도숙박할인 빅 이벤트' 코너에서 '광양시'를 선택해 쿠폰을 받으면 된다. 쿠폰은 전남관광플랫폼에 입점한 이벤트 숙박 업체에만 사용 가능하며 연박 시 최대 3박까지 선택할 수 있다.

할인은 10만원 이상이면 4만원, 7만원 이상이면 3만 원, 5만원 이상이면 2만원 등으로 차등 적용된다. 이벤트에 참여하려는 관광객은 이를 고려해, 먼저 이용 예정일의 숙소를 선택하고 숙박료에 해당하는 쿠폰을 받아야 한다.

구매를 진행하지 않으면 쿠폰은 당일 자정 자동 소멸하지만, 소멸 후에도 새로 내려받을 수 있다. 한편, 전남사랑애(愛) 서포터즈 회원의 경우 1만원 추가 할인이 적용된다.

이번 이벤트는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문화관광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광양시청 담당자(061-797-2731)에게 문의하면 된다.

김미란 광양시 관광과장은 "광양은 백운산, 섬진강, 광양만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중심으로 섬진강 별빛 스카이, 광양예술창고, 인서리공원 등 각종 액티비티와 문화예술 인프라가 풍성한 도시"라며 "새 학기 준비 등으로 분주한 3월을 보내고 비로소 한숨을 돌릴 수 있는 4월, 고물가로 봄 여행을 주저하는 분들이 있다면 '남도 숙박할인 빅 이벤트'를 통해 가벼운 마음으로 슬기롭게 광양 여행을 떠나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여수밤바다 낭만포차 문 엽니다

이달부터 영업…노후 천막 교체 등 시설공사 완료

시설 개선 공사로 운영이 중단됐던 여수밤바다 낭만포차가 이달부터 영업을 재개한다.

여수시에 따르면 제9기 낭만포차 운영협의회는 약 한 달간 냉난방기 설치, 컨테이너 내부 보수, 노후 천막 교체 공사를 진행했으며, 영업 개시 전 포차 광장에서 번영과 무사고를 다짐하는 기원제를 가질 예정이다.

시는 냉난방기의 과부하와 누전 등으로 인한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 배선 공사를 지원했으며, 낭만포차 운영자를 대상으로 한 친절 서비스, 바가지요금 근절 등을 지속적으로 교육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설 개선 공사를 통해 낭만포차를 찾는 시민과 관광객에게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롭게 단장한 낭만포차에서 다양한 먹거리와 색다른 경험을 즐기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여수 낭만포차의 하절기(3~10월) 영업시간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며, 동절기(11~2월) 영업시간은 오후 5시부터 오전 0시까지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탐스러운 '고흥 유자나무' 200그루 분양

30일까지 접수…그루당 7만원

고흥군이 유자 주산지의 대외적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2025년 유자나무 분양 이벤트'를 실시한다.

'유자나무 분양 이벤트'는 참가자가 1년 동안 자신만의 유자나무를 선정해 이름표를 부착하고, 직접 유자를 수확하는 도시·농촌 공감형 프로그램이다.

이벤트에 분양될 유자나무는 총 200그루이다.

이번 이벤트는 고흥군 유자축제 행사장 인근인 풍양면 양리마을에서 진행되며, 유자나무 분양을 희망하는 도시민은 고흥군 및 고흥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이달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분양 가격은 그루당 7만원으로 유자 10㎏과 체험비 등이 포함된 가격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유자나무 분양 이벤트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고흥의 유자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농업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자나무 분양 이벤트는 2023년 350여 명(82그루), 2024년 560여 명(129그루) 등 지난 2년간 1,000여 명이 참여해 특별한 추억을 남겼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